

朝鮮書誌와

書物同好會

宋 在 五



書物同好會가 그 會報의 創刊을 記錄한 것은 1938年 7月 (昭和13年7月)의 일로서 菊判 淸푸른 8頁로서 編輯兼 發行人이 櫻井義之의 名義로 띄어 있는 것이 始初라고 보겠다.

同一輯에 依據해 보던 同會의 設立 前後나 設立 趣旨에도 言及된 바가 있어 多少나 同會의 事業 運用 內容에 짐작이 가는 바이기도 한데 勿論 日人 書誌 愛好人의 모임으로 오로지 우리의 古典에 對한 嗜好와 研究를 中心으로 한 그네들 親睦 機關이었던 것을 一見 찾아 낼 수 있고 意外에도 斯種의 趣味人이 그네들에게 많았다는 것도 奇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은 設立趣旨을 말하기를 韓國은 文化史上 많은 業績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中國과 日本의 地域의 中心地로서 文化의 交流圈의 位置에서도 亦是 重要한 役割을 하여 온 것도 事實이다. 나아가 文化水準을 指標삼을 수 있는 書籍에 있어서도 그 뛰어난 바 있는 各分野 (特異한 相貌, 活字의 整正, 紙質의 優良, 裝幀의 特徵)에 걸쳐 學究의 態度로서 研究하여 나갈 것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韓國文化를 究明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尙甚 熱意에 차 있음을 披瀝 自負한 記錄도 읽을 수 있다.

이 同好會의 創立은 會報 1號가 出刊되

기 1年前의 1937年 (昭和12年) 5月5日의 일로서 南大門通 靑木堂 (現 第一銀行本店 隣近)에서 創立總會를 열고 丁茶山先生의 牧民心書와 士小節에 對한 菊池謙讓 會員의 講演으로 始作되었던 것이며 飯島滋次郎 岡田 貢 菊池謙讓 岸謙 黑田幹一 櫻井義之 末松保和 關野眞吉 中吉功 山田富士松 會員等等이 出席하여 幹事 提案 會則案에 對한 審議를 거쳐서 會則 十條案과 幹事 4名을 選出함으로써 創立總會를 마쳤던 것이며 每月 第一 金曜日에 例會 開催도 合議를 본 記錄도 아울러 찾을 수 있다.

그後 會報가 나오기까지 거의 이 例會는 어김없이 開催되어서 13例會 記錄을 彙報로서 第1報에 亦是 掲載되어 있는 것이다. 크사이 例會는 아마 會員 相互間의 巡回에서였는지 會場이 달라졌고 亦是 視聽을 企圖한 셈인지 依例히 晚餐을 서로 즐긴 후 小研究發表會 形式의 例會가 開催되었던 것이다.

研究發表의 內容은 書誌分野가 아닌 異例의인 分野에도 미친 바 있지만 어김없이 거의 韓國書誌에 對한 解題 質疑應答 研究를 主題로 삼고 檢討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同時에 이러한 例會時 講演內容은 速記 또는 講演者의 執筆에 依해서 書物同好會 冊子(前後11回の 冊子 刊行記錄이 있음 <註>)를 逐次 印刷 頒布해 낸 事

資도 있다. 그뿐 아니라 創立되던 해 12월에는 第1次 書影을 刊行하고 곧 稀釋에 屬하는 古圖 典籍속에서 6枚1組 코르타이 平版 首善全圖·北漢圖(北漢誌) 孟宗泣竹(三綱行實圖), 見牛捉獲(十牛圖), 處容舞(園幸乙卯整理儀軌), 擊毬譜, 高麗國藏書記(重廣會史)를 頒價 25錢으로 刊行을 하는 同時에 第2次 書影 豫告를 朝鮮古活字版 數種을 選定하고 影印 豫定을 아울러 發表에 놓는等 書物同好會會報 第1號는 發足以來 會 運營의 充實함을 如實히 보여 주는 것 같고 이 會報 發刊을 고비로 同會도 實質的으로 第二段階로 進出한 감이 없지도 않다.

二

會報는 今後 順調로이 發行이 돼서 3號에서부터는 3月 6(7月)9月 12月 年4期刊으로 刊行이 돼서 最終號 20號(1943年 昭和18年 12月)를 내기까지 이렇게 되었다. 1號에서부터 10號까지는 그야말로 無裝紙 無裝幀 一面에서부터 記事 記入 式으로 16頁 平均으로 組版이 되어 있고 간혹 特輯號에 있어서 30頁이 넘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第11號에 이르면서부터 表紙가 添해지며 書籍의 出刊 廣告도 보게 될 수 있게 되었으며 冊中에 銅版으로 된 插畫도 插入된 것을 볼 수 있으니 若干의 美意識이 加味 된 셈이라고 하겠다.

勿論 그 사이의 이 同好會의 움직임이 라든지 그네들의 모든 業績이 이곳에 다 包含되어 있어서 이 20卷만 閱覽한다면 거의 그 全貌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各號의 編輯內容을 살펴보면 總執筆人 124名에 미쳤고 同好會員이 아닌 人士도 많이 執筆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宋錫

夏 孫晉泰 李仁榮 安奎應 金聲七諸氏의 論文도 읽을 수 있다. 主로 全號에 걸쳐서 論陣을 세웠던 人士는 同好會 創立會員의 멤버로서 特히 關野眞吉 櫻井義之 藤田亮策 末松保和 三木榮會員은 그 記錄의 贊음을 發見할 수 있으니 同會를 爲하여 努力이 컸었음도 생각해 되는 바 있다.

各號마다 56名의 各種 論說의 執筆 記錄을 비롯해서 頁餘에 걸쳐서 單行本 雜誌 論文別로 比較的 詳細하게 韓語書誌文獻一覽이 收錄되어 있다. 거기에 異彩를 띤 것은 古今 藏書印譜의 作製인데 每回 當時 城大圖書館에 勤務하고 있던 上床一男 會員의 努力으로 獨特하고 風格있는 善을 白紙에다가 典雅 優美한 印譜를 前後(朝鮮正祖印文四, 侍講院印文五, 尊經閣印文二) 3회에 걸쳐 鮮麗하게 掲載되어 있어 會報의 品格을 높이고 있다. 또한 視聽의 證左인지 朝鮮의 板本의 著者 前問恭作會員의 追悼 特輯이 나왔고 鮎貝房之進會員의 喜壽 祝賀號도 記錄하고 있다. 全般 內容의 分類는 먼저 우리 活字 研究에 對한 貴重한 論文이 他를 壓卷하는 感이 있고, 佛敎書, 稀釋本解題, 古今內外 書誌人紹介, 典籍交流記, 民俗에 關한 것 其他隨筆等等으로 되어있고 前卷를 通한 聯關性 있는 어떠한 大論題의 掲載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또 各篇 各篇에 있어서도 數十頁를 要하는 大論文을 發見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單純한 同人趣味誌의 性格도 아닌 純然 學術的인 簡素한 會報의 記錄이라고 看做되는 바이다.

그後 同好會 冊子도 第11號까지 出刊을 보게 되고 書影에 있어서도 豫定대로 第2輯 朝鮮古活字集 6枚 第3輯 朝鮮古版本挿繪集 6枚를 影印한 事實이 있었고 月例會도 63回 例會의 記錄을 엿볼 수 있으니 趣

味人 同學 同人會로선 于先 끈기 있었음 이 느껴지기도 한다.

三

當然한 日本의 敗亡으로 이 書物同好會도 宜當히 그 存在가 喪失되었지만 여기서 同會의 움직임이 돌아켜 볼 때 多少의 所感이 없을 수 없다.

첫째 비록 그네들의 우리 古典研究에 對한 同人體의 獲足은 늦었음지라도 實은 麗朝 以來 高度로 發達되었던 우리 出版文化를 壬辰倭亂以來로 그들은 多量으로 接하면서부터 끊임 없는 憧憬의 對象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知悉하고 있는 바이며 나아가 多少의 識見이 있는 者라면 斯種의 教養을 얻고자 努力했고 나아가 그것을 어떤 矜持로 自處했다는 事實도 생각해 볼때 斯種의 學問에 從事하는 學者뿐만이 아니라 門外漢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우리 古典에 對해서 가까이 하였다는 點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그 뛰어난 바 있는 우리 古典에 對한 溫故의 情이 세삼 새 로워지며 까닭에 日政 36年間 그사이 이 러한 好機에 接한 우리의 典籍은 비록 靜而不言이었지만 事實 누구에 못지않게 顯正破邪의 說論를 그네들에게 끈기 있게 배 풀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一種 뜻 있는 생각까지 나는 것이다.

둘째는 36年間의 日人의 이갑래의 同好人의 蒐書가 그야말로 우리의 典籍環境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事實인데 個中에는 相當한 蒐書家도 많이 있어 高價로 購書하

는 關係로 제법 相當量의 圖書가 그네로 流出되어 간 것도 틀림없는 事實이라 國內에서 찾을 수 없는 貴重 稀覯本이 도리어 그곳의 目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結果적으로 어땀은 遺憾된 우리의 典籍環境이 아니었던가 한다.

셋째로 생각 나는 것은 비단 日人뿐만이 아니라 西歐人까지도 우리의 典籍의 文化스런 書史에 對해서 大目錄을 作成한다, 同好會를 組織한다 하는 그 書誌愛好的의 精神에 우리는 한결 超越해서 새롭고 廣範圍하며 永久性 있는 現存하는 古典管理의 積極策을 講究할 義務를 오늘날 누구나가 다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 하는 것이다. (筆者 書誌學者)

- 註 書物同好會冊子
- | | | |
|------|--------------------------|-------|
| 第1號 | 支那及び朝鮮の古活字に就て | 鮎貝房之進 |
| 第2號 | 朝鮮印書雜誌話 | 今村 鞞 |
| 第3號 | 朝鮮正祖朝に於ける書物傳來の一例 | 末松保和 |
| 第4號 | 新羅時代の金銀に就て | 黑田幹一 |
| 第5號 | 朝鮮の裁判醫學 | 三木 榮 |
| 第6號 | 時代を異にする「農事直説」の相異と時代農法の一部 | 片山隆三 |
| 第7號 | 乾隆時代の戰爭畫に就て | 末松保和 |
| 第8號 | 事大使行と其の紀行錄 | 田川孝三 |
| 第9號 | 八城誌について | 末松保和 |
| 第10號 | 奉天を詠いた漢詩集 | 植野武雄 |
| 第2號 | 對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 田川孝三 |